

광주·전남 대학탐방

1 동신대

밀착지도 성과... '취업명문대학'으로 우뚝

교수·학생 간 맞춤형 프로그램 엘리트 양성 결실

취업률 65.7%... 일반대학 중 3년 연속 광주전남 1위

취업이 대학가의 핫 이슈가 된지 오래다. 취업 스펙을 갖추기 위해 대학생들은 학점 관리하러, 어학 성적 올리러, 봉사활동 하러 하루하루 분주하고, 취업을 위해 졸업까지 미루는 모라토리엄 대학생들도 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 같은 취업 준비가 학생 개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인데, 동신대학교(총장 김필식)는 대학 차원의 체계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수년 동안 돋보이는 취업 성과를 기록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취업률 65.7% 대학 자리매김=동신대는 올해 65.7%의 취업률을 기록하며 졸업생 1000명 이상 광주·전남 일반대학 가운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켜냈다.

동신대 취업률은 전국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평균 취업률(58.6%)보다 7.1%, 일반대학 졸업자 평균취업률(54.5%) 보다는 11.2%나 높은 것이다. 또 올해 산업대를 포함한 '다'그룹(졸업생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대학 중에서는 전국 톱 10에 올랐다.

특히 43개 전체 학과 가운데 각 학과별 취업률 순위 'TOP 10'에 든 학과가 22개에 달했다.

한의학과가 85.1%로 전국 한의학과 평균취업률(77.4%)을 7.7% 포인트 상회하면서 전국 한의학과 중 취업률 1위에 랭크

했으며, 실용음악학과도 75%의 취업률을 기록해 전국 실용음악학과 32개 중 1위를 차지했다.

◇교수·학생 간 밀착프로그램으로 동기 부여=높은 취업률의 비결은 교수·학생간 밀착 취업지도교수제와 장단기 전략이 조화를 이룬 효과적인 취업 프로그램에서 찾을 수 있다.

동신대는 '사제간 커뮤니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생들과 학과 교수들이 팀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대학 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고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다. 모임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학에서 일정부분 지원해준다.

또 효율적인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취업지도교수제를 도입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적성을 고려한 밀착 취업지도를 하고 있다.

밀착 지도가 학생들에게 학습이나 취업에 동기부여를 해준다면 전공과 관련된 실력을 높이는 데는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

◇모의면접 등 취업프로그램도 큰 성과=동신대는 또 학생능력개발처를 통해 모의면접, 취업교과목 운영, 취업캠프, 셀프면접, 자기소개서 작성법 지도 등 효과적인 취업 단계 교육을 시행해 취업에 필요한 스킬을 키워주고 있다.

또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돕고 취업 후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국제공인자격증 MOS(엑셀, 워드 프로세서, 파워포인트, 액세스) MASTER 취득을 지원해 주고, 취업 동아리 지원,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시행, CEO 특강, 학과별 취업카페 구축 등 체계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에게 마일리지 장학금을 지급해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엘리트양성 프로그램=동신대, 스마트동신인 인증제, 공무원 양성 프로그램 등 엘리트 양성 프로그램도 결실을 얻고 있다.



'방과 후 생활영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참여한 강사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동신대는 매년 20명의 동신리더를 선발해 등록금 전액과 기숙사비 전액을 면제해 주고 해외연수, 학습관리프로그램, 헬스클럽, 교내 골프연습장 무료 이용 혜택 등을 부여하며 학업에 전념토록 하고 있다.

또 일정 수준의 외국어능력과 정보화능력, 봉사점수를 갖춘 학생을 총장이 인증해주는 스마트동신인 인증제를 도입, 차별화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최고급 기숙사인 인재육성관을 건립해 동신리더, 공무원 지원자 등 100

명을 선발, 기숙사비 전액을 감면해주고 특강, 영어강좌 등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필식 동신대 총장은 "동신대학교는 교수님들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취업지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취업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동신대를 취업 잘되는 대학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갈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에서 떠나는 세계문화여행

11월까지 '아시아문화마루 문화원 체험프로그램'

프랑스·일본·중국·아랍권 등 영상복합문화관서

국내에 주재하는 각국 문화원 프로그램을 유치해 이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문화원 체험프로그램'이 열린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주최하고, 조선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승권 교수)이 주관하는 '2011아시아문화마루 문화원 체험프로그램'이 프랑스 문화원을 시작으로 3개월 간 동구정 옆에 위치한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진행된다.

한국 주재 외국문화원에서 소개되고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프랑스문화주간(29일~9월9일)을 시작으로 ▲다문화교육프로그램주간(9월19일~9월30일) ▲일본문화주간(10월4일~10월14일) ▲중앙아시아문화주간(10월17일~10월28일) ▲

중국문화주간(10월31일~11월11일) ▲아랍권문화주간(11월14일~11월25일)의 순서로 진행된다.

29일 시작돼 9월 9일까지 열리는 프랑스문화주간 행사는 전시, 씨네프랑스, 키즈아트클래스, 주한프랑스문화원 대학교육협력담당관의 초청강연 등으로 꾸며진다.

먼저 전시행사는 언론인 사진작가인 아니 아슬린을 포함한 25명의 현대 프랑스어권 작가들의 프로필 사진과 그들이 작업하는 손을 사진으로 담아 낸 '작가의 손', 프랑스 국립 유적보관소에 비쳐된 24점의 유적 사진에 대한 프랑스 문화가 100여명의 설명이 곁들여져 프랑스를 역사와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100개의 유적, 100명의 작가'전이 열린다.

씨네 프랑스(8월 31일, 9월 2·6·8일) 프로그램은 '마담보바리', '라비앙로즈', '돈주앙', '노르드 드 파리', '키리쿠키리쿠' 'Princes et princesses' 등 프랑스의 대표적인 문화와 음악을 테마로 한 영화 6편을 상영한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키즈아트 클래스(9월 1·3·5·8일)도 사전예약으로 진행된다. 프랑스 상징물을 이용해 플라주 및 화분을 만드는 2시간짜리 미술수업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30일 오후 2시 주한프랑스문화원 프랑스와즈 켈르 교육담당관이 '프랑스의 대학과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초청강연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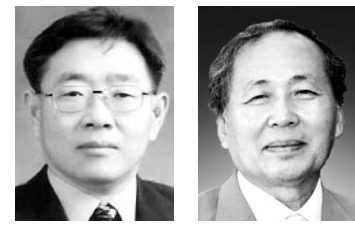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문의 및 사전예약은 062-230-6577, 혹은 http://www.ilis.or.kr로 하면 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여대 정수진 이사장·주지문 총장 내달 1일 취임

학교법인 송학학원과 광주여자대학교가 오는 9월 1일 오전 11시 대학본부 국제회의장에서 제2대 정수진 이사장과 제7대 주지문 총장 취임식을 개최한다.

정수진(54) 신임 이사장은 익산 출신으로 원광대학교 교수이며 원광대 경상대학장, 대한경영교육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주지문(65) 신임 총장은 구례 출신으로 충북대 사범대학 교수로 충북대 총장과 학술진흥재단 이사장,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정수진 이사장 주지문 총장

회장을 역임했다. 또 선진국민연대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ROTC 8명 배출

호남지역 최다·전국 3위

조선대학교가 2011년 여자 ROTC 선발에서 8명의 최종합격자를 배출해 대전대 11명, 한남대 9명에 이어 대구가톨릭대학교와 함께 전국 3위를 기록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0년에 승명여대를 비롯한 6개 대학에 여자 ROTC(60명)를 인가했다.

이어 올해는 전국ROTC 인가대학 103개 대학에서 160명을 자유경쟁으로 선발했다. 자유경쟁 선발 결과 조선대는 8명으로 호남지역 최다합격자를 기록했으며 전북대 5명, 원광대 2명, 전주대·군산대·동신대 각 1명씩의 합격자가 나왔다.

조선대 군사학부(학부장 박기주)는 여자 ROTC 지원자 전원을 10% 이내 상위권 성적으로 합격시킨다는 목표를 정하고 평가분야별로 3~4학년 ROTC 학생들로 멘토(교관)를 편성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강훈련을 실시해 최다 합격의 실적을 거뒀다. 박기주 군사학부장은 "훈련 기간 중 여러 차례 철야훈련을 실시하는 강훈련 속에서도 발목골절, 피로골절을 입은 학생들까지 나오지 않아 강훈련을 전원 수료해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가톨릭대학, 종교지도자 양성 학과 인정

광주가톨릭대학교(총장 노성기)는 지난 8월5일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 학과로 인정받았다.

광주가톨릭대는 일반 종교계열 대학과 달리 '신학과'만을 개설, 졸업자들이 가톨릭 사제의 길을 걷는 특별 종교 지도자 양성 대학이다.

이에 따라 광주가톨릭대는 취업률 등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리하는 각종 실적

지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여타 대학과도 비교되지 않는 특수대학이다.

광주가톨릭대는 입학금 및 등록금이 없으며, 기숙사비를 비롯한 기타 징수금이 없다. 지난 1962년 문을 연 광주가톨릭대는 내년 5월로 개교 50주년을 맞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Chilman brand waterproofing products. Features text: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Includes contact info for (주)칠만공차 / 칠만표방수제.

Advertisement for solar power subsidies. Features text: '2011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끊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Includes a table of subsidy amounts and contact info for (주)동성애어텍.